

마태 13, 24 ~ (하늘나라의 비유)

하늘 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에 비길 수 있다.

하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하늘 나라는 누룩과 같다.

하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하늘 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하늘 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하늘 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와 같다.(마태 20, 1-2)

하늘 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마태 22, 2-3)

하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마태 25, 14)